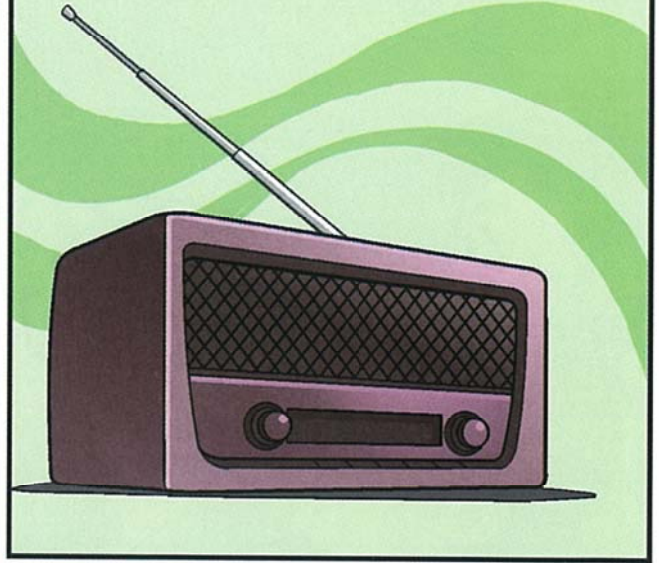




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때였으니 텔레비전을 갖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이야기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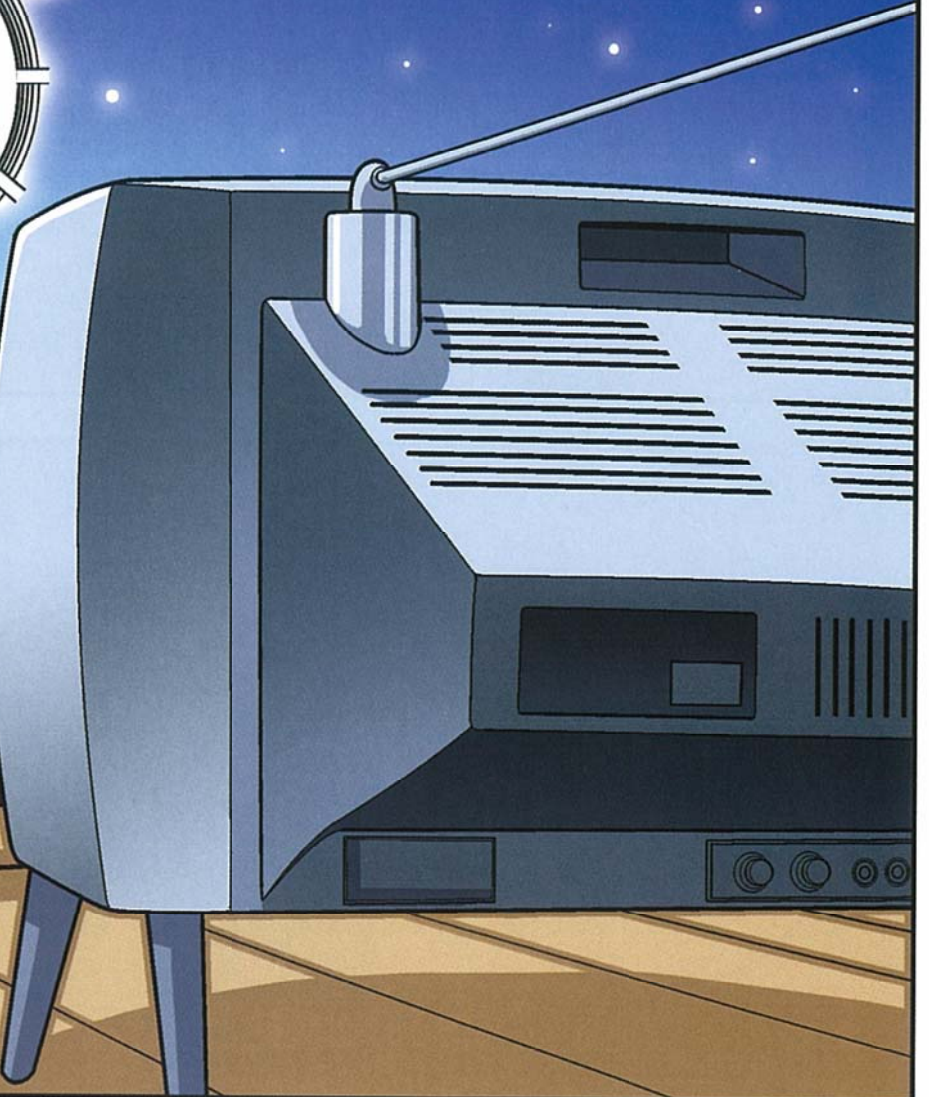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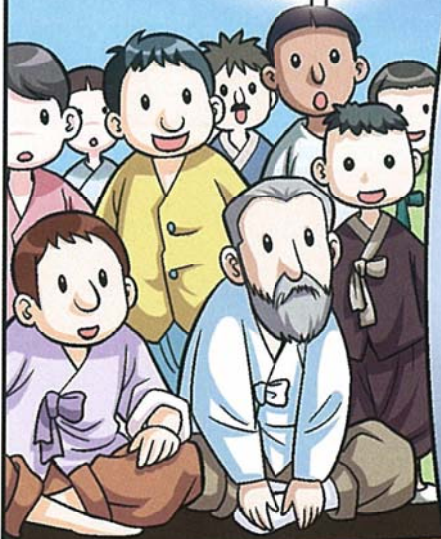


겨우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게 고작이었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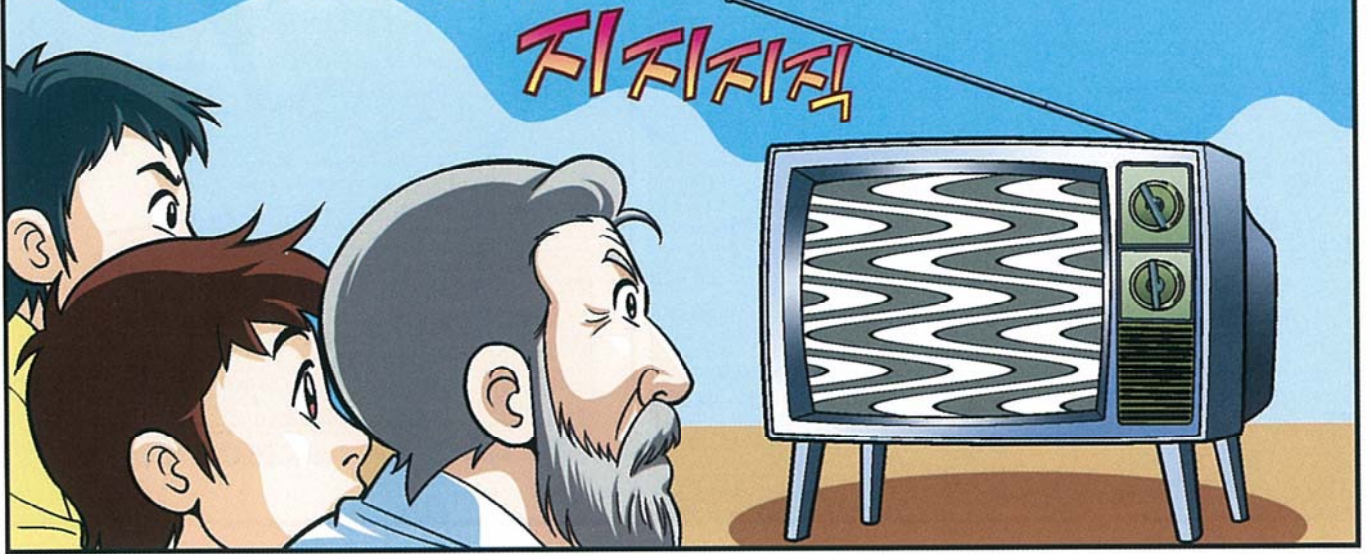


어쩌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권투나 레슬링, 축구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TV가 있던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 꽉 차기 일쑤였다.

곧이어  
박치기왕  
김일 선수의  
등장입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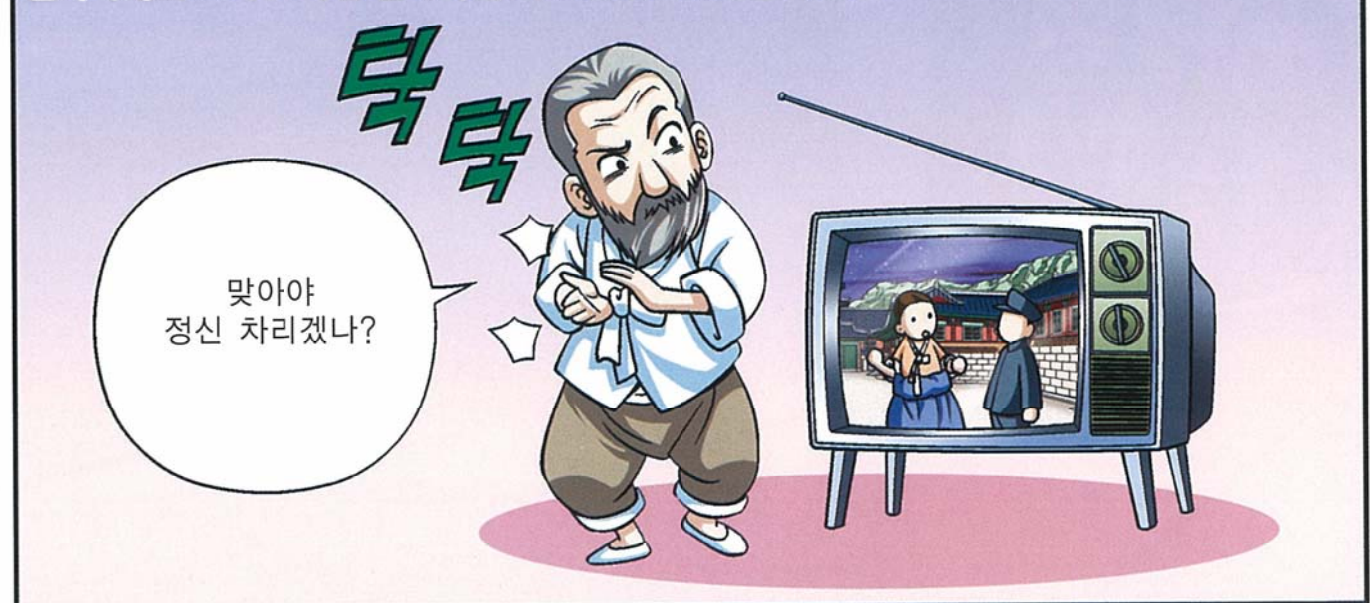
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대도시에서도 멀쩡하던 TV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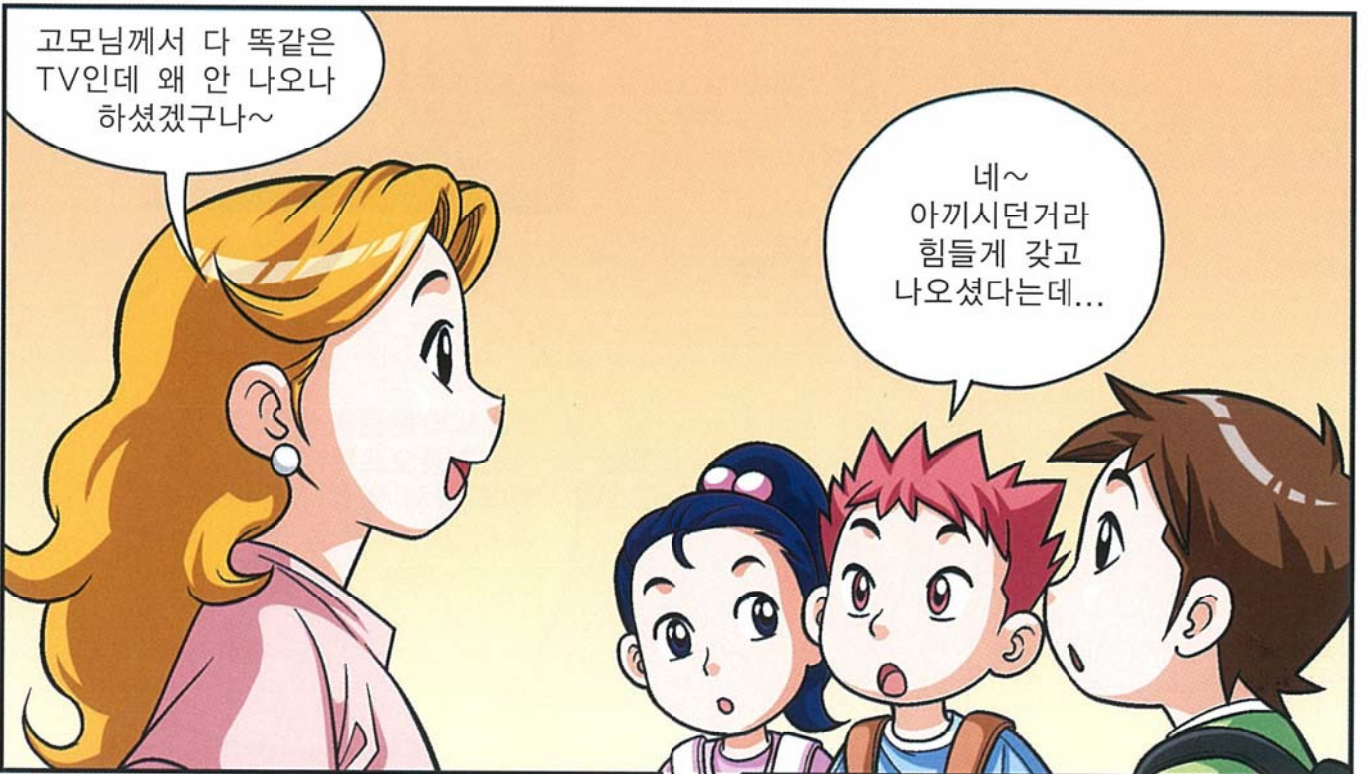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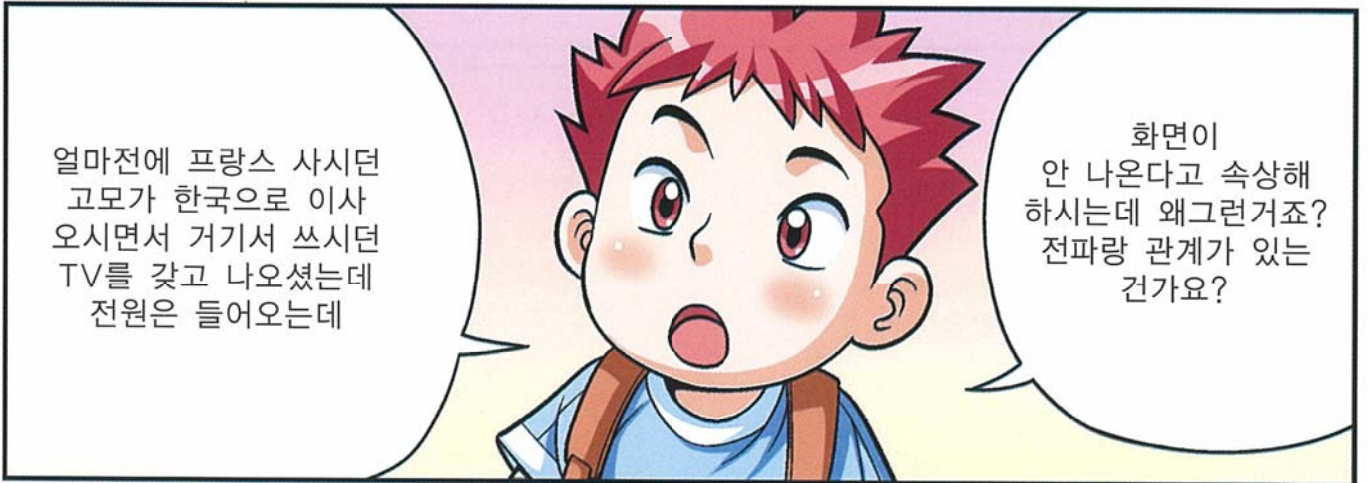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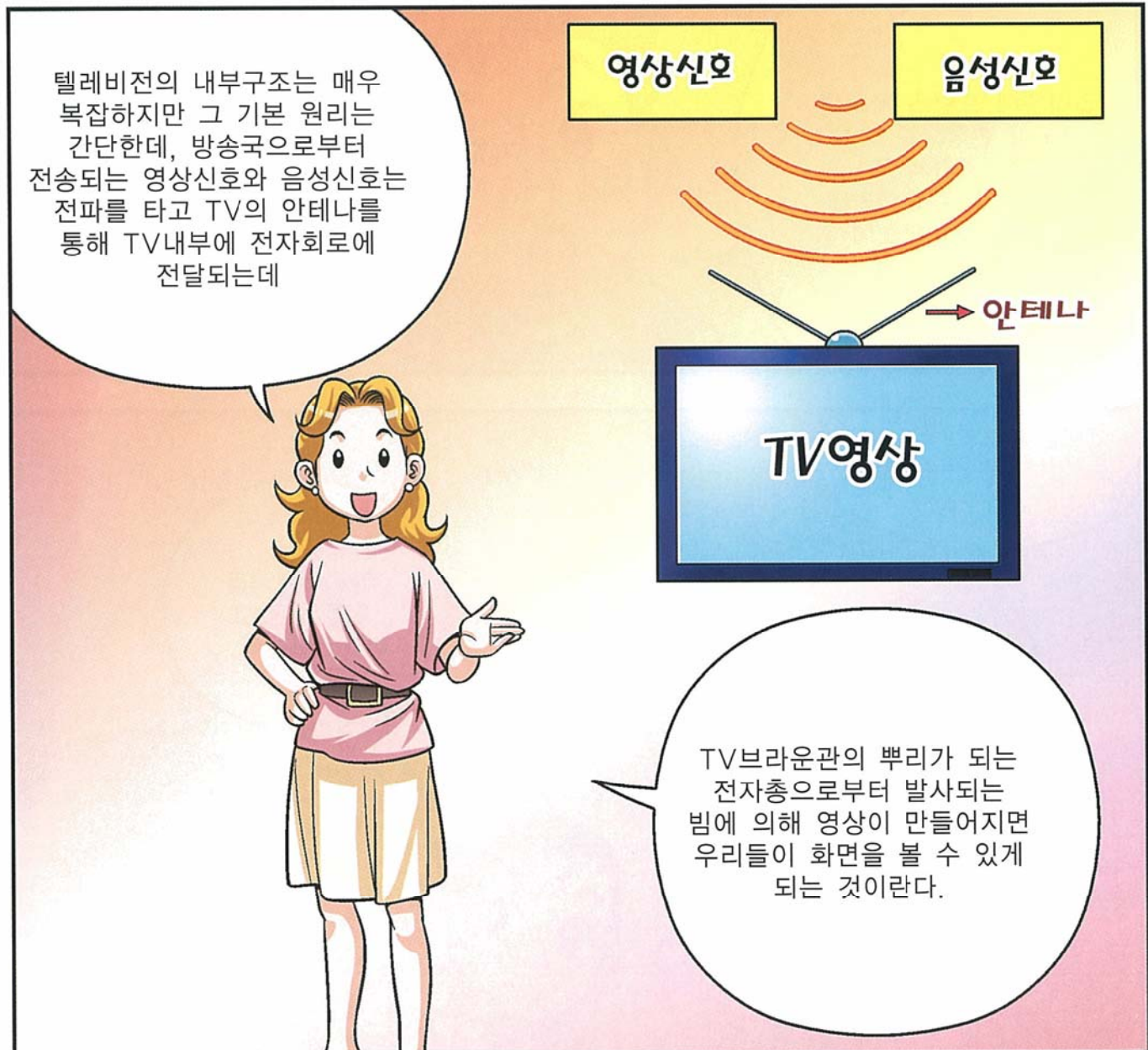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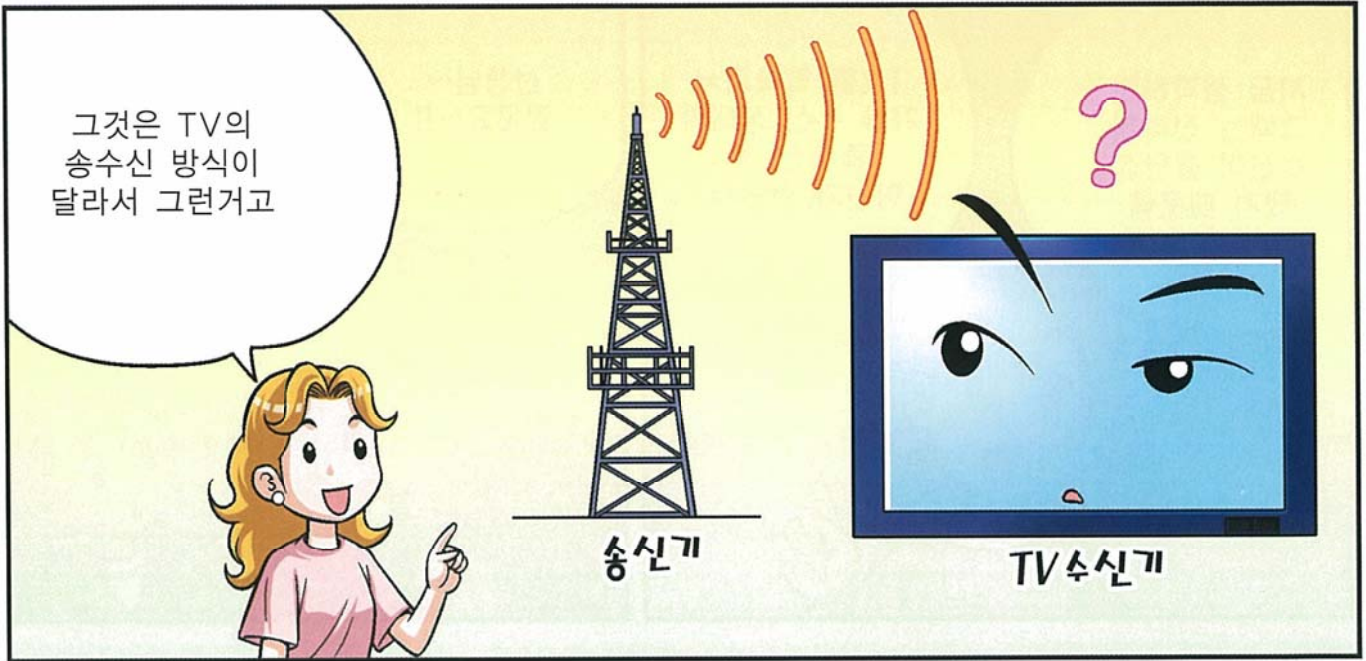
그러면 어른들은 텔레비전을 몇 대 치시곤 했는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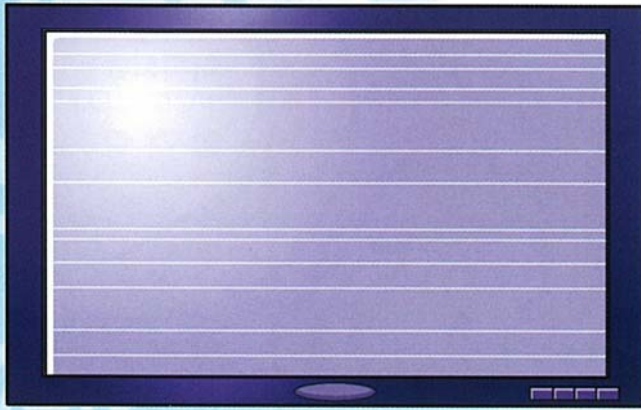


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면 텔레비전 화면이 선명해지곤 했단다.









텔레비전의 화면은 많은 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선을 '주사선' 이라고 하며 이 주사선의 수는 나라마다 채택한 TV방송 방식에 따라 다르지



\* 주사선 : TV의 브라운관의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빔이 TV화면에서 1초당 상하, 좌우로 화면을 이루는 선. 1초당 NTSC방식은 30회, PAL방식은 25회 주사함.



NTSC  
1 초에  
30회 주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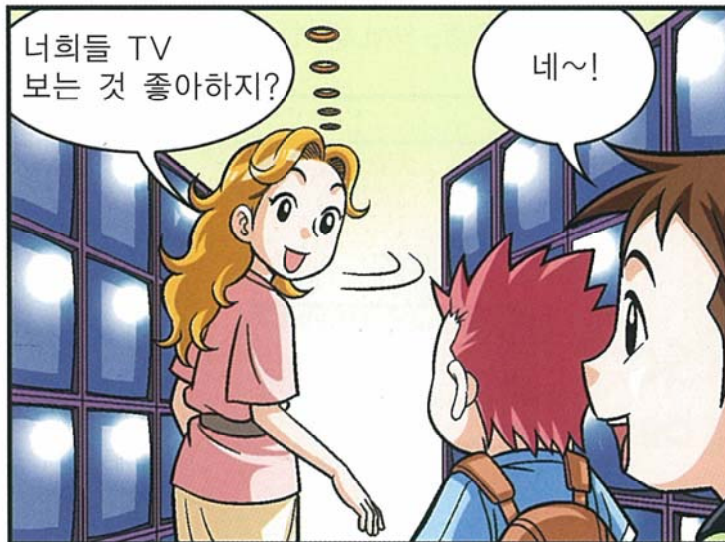
made in France

난 1초에 25주사 밖에 못해.

우리나라는 미국의 NTSC방식. 즉, 1초에 30회를 주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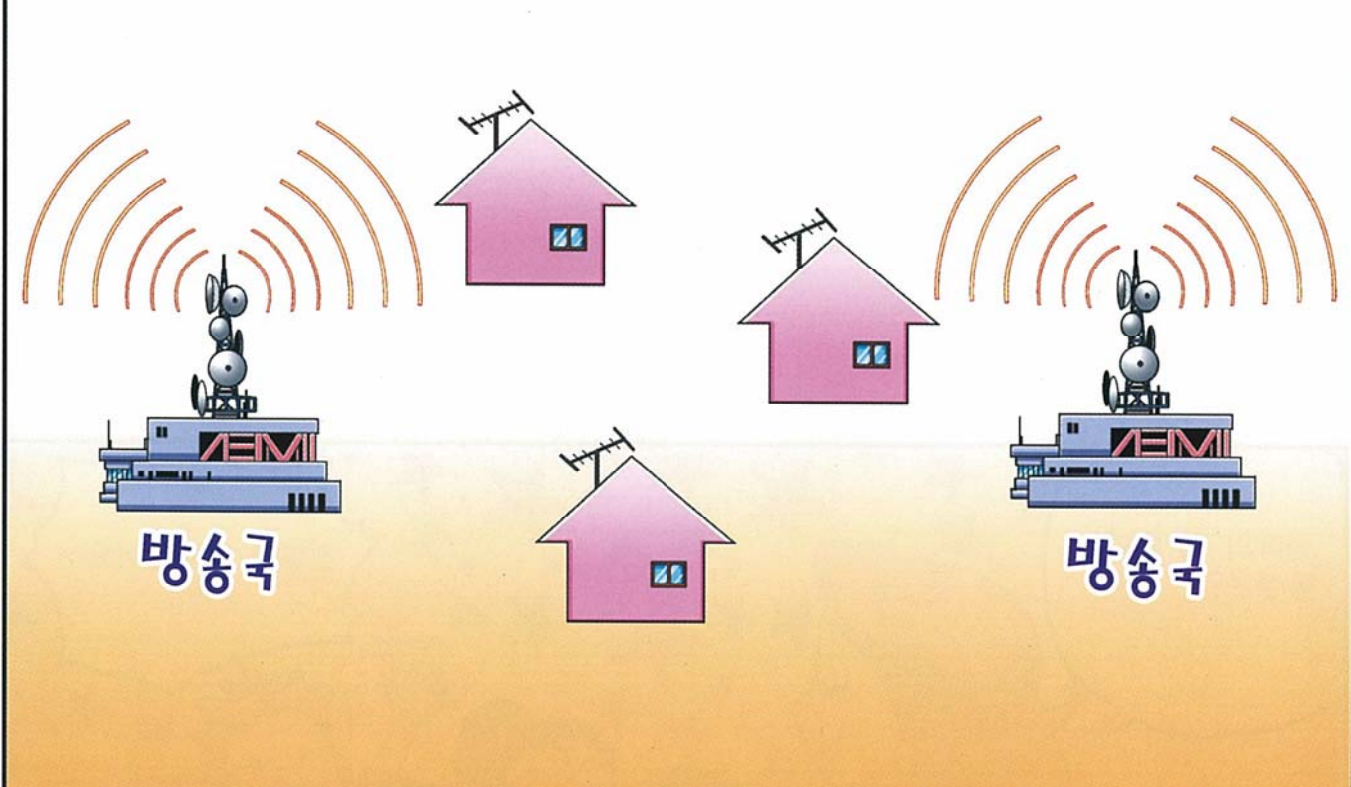


1초에 25회를 주사하는 프랑스(유럽)의 PAL 방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란다.





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 장비를 가지고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방송으로 수신 장치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을 말하는데.



예를 들어 KBS, MBC  
SBS, EBS 등이 지상파  
방송에 속한다.

지상파 방송이다 보니  
옛날에 TV수신률이  
좋지 않았던 이유는  
전파의 성질과도  
관련이 있는데.